

경영지원부
이남희 대리



**급식수요로 산지난가 반등기대
- 신계군 증가로, 반등폭 크지 않을 듯 -**

◆ 동향

난가는 2월중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도권 특란기준 138원까지 주저앉았다. 많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노계도태에 나서고 있으나 비수기 계란 과잉생산으로 인해 농가를 비롯해 유통에서도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덩핑물량이 증가하고 현장할인 거래폭이 늘어나 추가적인 난가하락이 불가피했다. 난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도태에 나서는 농가도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도 1~2주가량 지연되고 있어 도계지연 현상은 3월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보다 난가 불황이 심화되면서 3월 난가인상 기대도 차츰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급식수요가 생긴다 하더라도 농가 및 유통에서 보유한 재고량이 소진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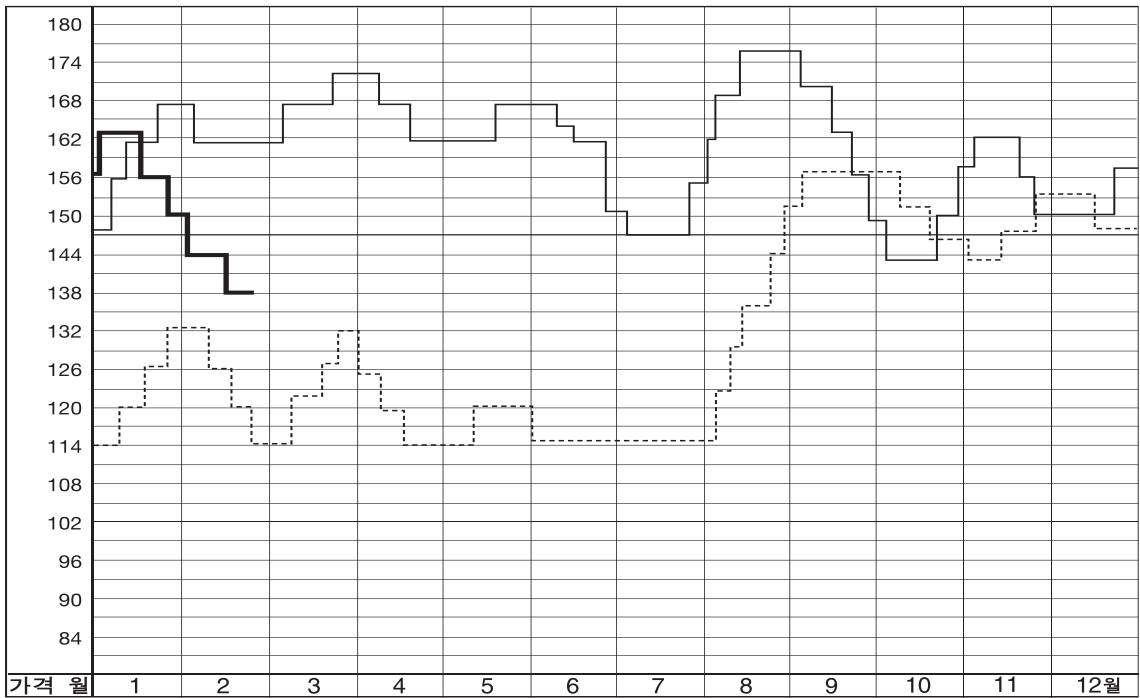
◆ 자료분석

1월 산란중계 입식수는 20,000수로 전년대비 81.8%가 증가하였다. 같은 달 산란실용계 판매수수는 3,263천수로 전년대비 37.1%증가, 전월대비 1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중계입식수 증가에 따라 올해 병아리 공급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계입식동향으로 산란계병아리 생산잠재력을 추산한 결과 생산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월 이후부터 월 4백만수 이상의 병아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아리 공급량 증가로 인해 거래단가 또한 약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병아리 단가는 1,300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그 이하거래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추 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난가 안정에 따른 도태지연으로 산란노계 도태수는 21,810천수로 전년대비 10.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난가는 당분간 약세를 이어가겠으며, 당초 3월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등시점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대량물량 수요가 생긴다고 하여도 농가와 유통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소진되는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점차 신계군의 계란생산비중은 높아지는 가운데 노계도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난가가 반등하더라도 생산원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봄철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두드러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생산 피크기에 달하는 신계군 수의 증가는 과잉생산구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현재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은 입추 당시 과열된 입식열기로 어렵사리 구한 고가의 계군이었어서 난가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허탈함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0-- 2011 - 2012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263			1,338	1,589
2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3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4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5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6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7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8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9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1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11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12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계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닉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